2015년도 성경공부

제목: 옥중서신

공부의 목적

성경의 일부인 옥중 서신을 공부하므로 상황에 관계없이 꾸준한 신앙을 할 신앙적인 근거요 기틀을 마련하는데 공부의 목적이 있다.

공부 일정: 2015년 4월6일-2015년 10월 27일

준비 사항: 성경과 필기도구 (화일은 교회에서 제공함)

시간: 저녁7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1시간

2015년 4월 6일 제 1강.

옥중서신 개론

간단한 성경 구성 안내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구성되는데

|  |  |  |  |
| --- | --- | --- | --- |
| 구약 | 39권 | 929장 | 23090 절  |
| 신약 | 27권 | 260장 | 7949절  |
| 총 | 66권 | 1198장 | 31039절  |

구약

|  |  |  |
| --- | --- | --- |
| 모세오경: 율법서/토라 | 창세기 출애굽기.레위기.민수기. 신명기 | 총 5권 |
| 역사서 | 여호수아.사사기.룻기.사무엘상 하. 열왕기상 하.역대상 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 이 당시 성경이 중요하게 됬다. BC 12 세기 전까지는 구전으로 내려왔다. 성전이 무너졌다. 538 느브갓네살 예루살렘 정복. 종교의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 없어졌다. 그래서 그 때 부터 기록하기 시작됬다.  | 총12권 |
| 시가서 | 욥기 시편 잠언.전도서.아가 | 총5권 |
| 대예언서(선지서) | 이사야.예레미야.예레미야애가.에스겔.다니엘 | 총5권 |
| 소예언서(선지서) | 호세아.요엘.아모스.오바댜.요나.미가.나훔.하박국.스바냐.학개. 스가랴 말라기 | 총12권 |

신약

|  |  |  |
| --- | --- | --- |
| 복음서 | 마태, 마가, 누가, 요한 | 4권  |
| 행전/역사서 | 사도행전 | 1 권  |
| 바울서신/일반서신옥중서신목회서신 | 로마서 고린도전 후.갈라디아.데살로니가전 후. 히(?) | 7 권  |
| 엡, 빌, 골, 몬 | 4 권  |
| 딤전,후, 딛 | 3 권  |
| 공동서신  | 야고보. 벧전 후. 요한 일이삼. 유다서  | 7권  |
| 예언서 | 요한 계시록 | 1권 |

내가 가장 원하던 것이 안 이루어진 때 말씀

옥중서신

로마 인구구조 system

그런데 예수가 나타나 하나님이라고 한다.

황제가 가만히 놔두겠는가?

황제 – 신 자체

귀족들

자유 시민들

용병

노예들

이런 상황에서 감옥에 갔다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가망이 없다. 황제가 신이 아니라고 하면 죽는다.

감옥을 가게된 배경 /행22-26장 필독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다고 말하다가)

행22:7-8 (히브리어로 말함)7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8 내가 대답하되 주여 뉘시니이까 하니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참고/행7:52-56 (스데반의 경우)

52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53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54 저희가 이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55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56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되고 형태는 무관하다. 황제를 만나기 위해 준비해야 하겠지만 하나님 앞에는 필요없다. 시련도 허락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가장 잘 설명된 곳이 십자가다.

추측되는 감옥

1) 에베소 (고전 15:32) - 3차전도여행 시

2) 가이사랴(행 24:27) - 마지막 예루살렘여행 시

3) 로마 (행28) - 1차 로마여행 시

여러 투옥되었던 감옥중에서 로마의 감옥이라 추측하는 이유

에베소 감옥설을 보면 맹수와 더불어 싸웠을 상황처럼 보인다. 곧 차분히 편지를 쓸 시간적 여유가 없었을 것이다. 가이사랴의 경우는 총독이 바뀌는 등 급박한 상황에 있었다. 그래서 그는 로마황제에게 송사하여 로마에 갈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행25:11). 그러나 빌레몬서를 보면 로마에갈것이 아니라 곧 석방되어서 빌레몬에게 가서 유숙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바로 그리스도인 종 오네시모가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기록에 나오는 도망을 한 종 오네시모를 에베소감옥에서 만났을 경우에는 매우 가까운 지역인데,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서 도망하였을 때 같은 로마총독의 관할구역인 에베소에 있다는 것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는 무의미한 도피일 것이다. 만약 가이사랴에서 오네시모를 만났다면 더욱 문제가 된다. 가이사랴는 로마총독의 군대가 주둔한 주둔지였다.

이곳에는 보통 로마군대 1개 여단이 주둔하고 있었는데, 이는 약 7200명 규모이다. 이러한 곳에 그가 도피했다는 것도 역시 이해가 안된다. 이것으로 보아서 그가 이야기하는 감옥이 로마감옥이라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 로마에서 바울은 자유로운 환경이었을 것이다. 또한 오네시모가 도망하는 것도 유대인이 1/10이 살고 많은 인종이 섞여 살고있는 대규모 도시인 로마로 도망했다는 것이 더욱 타당성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1차 로마 투옥시에 이 성경들이 기록되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다.

바울이 투옥된 기간

에베소(기간을 모름/단기라고 생각됨)및 가이사라 감옥에서 2년, 로마 감옥에서 2년, 오는데 6개월 즉 4년6개월~5년 정도의 기간이다. 미결수였으니, 고난받지 않았다.

옥중서신의 요약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네 권의 책을 바울의 옥종서신이라 부른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골로새 교회의 장로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의 이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로마로 바울을 찾아왔다.

바울은 즉시로 펜을 들어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쓰면서 아울러 골로새 교회의 장로인 빌레몬에게서 도망친 그의 종을 용서하라는 편지도 썼다.

편지를 가지고 가는 두기고가 분명히 에베소 항구에 들를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3년 동안이나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도 같이 써서,

빌립보에서 파견되어 바울을 돕다가 죽을병에 걸렸었지만 이제 완쾌되어 돌아가는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냈다. 이렇게 쓰여진 책들을 옥중서신이라 한다.

이런 것을 감옥에서 쓰셨다

옥중서신의 중요성

빌4:4-7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 마음에 하나님이 거주 어디서나 가능하다.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위의 용기있는 말씀이 오늘까지 남아서 우리에게 있는 것은 그가 이런 위대한 신앙의 표현을 매우 좋지 않은 환경(감옥)에서도 용기를 잃지않고 그 믿음을 지키는 글로 기록을 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옥중 서신의 일부인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는 깊은 기도와 묵상과 자기 전개가 잘 되어 있다. 그가 감옥에 가 있는 동안 그는 대외적인 전도활동을 못했지만 자신과 하나님에 대한 깊은 명상과 연구를 할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그래서 신구약을 총 망라해서 가장 수준높은 작품들을 기록하게 된 것이다. 사람들은 이런 신앙의 표현때문에 에베소서를 '서신의 여왕'이라고 한다.

좌행청 – 앉고 걷고 행하다. 와치만 니

에베소서 - 서신의 여왕

로마서가 내면세계의 질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께 화목하는 방법을 다루었다면,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기를...' 위한 그의 역작인 것이다.

그는 감옥에서 오히려 우리의 삶을 더욱 강하게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엘렌 화잇은 사도행적 51쪽에서 이런 글을 남긴다.

“참 하나님의 목사는 고난이나 책임을 회피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유혹을 이기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의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을, 진심으로 구하는 사람들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는 능력의 근원에서 끌어 온다. 그가 받아들이는 은혜의 성질이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아는 능력을 확대시킨다. 그의 마음은 주님께서 가납하실 만한 봉사를 행하고자 사모하는 소망으로 부풀게 된다. 그가 그리스도인의 길에서 전진할 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여진다. 이 은혜는 그가 들은 사물에 대하여 그로 하여금 충실하게 증거할 수 있게 한다. 그는 하나님에게서 받은 지식을 멸시하거나 게을리 하지 아니하고 이 지식을 저희 차례가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충실한 사람들에게 의탁한다.”

**옥중서신은 위에서 언급된 신앙을 우리에게 전수하기 위한 책으로 우리가 꼭 공부해야할 주제인 것이다.**

다니엘과 세친구의 경우 첫 시험10일 건강... 오 그래? 하고 넘길 수도 있따. 꿈 해설... 오 그렇네... 그러나 정말 놀란 때는 풀무불 앞에서였다.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져야 하는 십자가 – 고난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특권.